

서민지원 · 중소기업감면 등 대폭 확대... 10년 만에 감세효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혁신성장 시설 투자자산, 감가상각 기간 ↓ ... 가속상각 적용

세수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감세효과로 돌아왔다. 서민 · 중산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향후 5년간 2조5500억원대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 중산층 등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통해 10년 만에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2조55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1800억원)과 중소기업(2700억원)으로 부터 4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12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600억원)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500억원)의 감세 정책도 나왔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로 2조6200억원,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34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8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했다. 고소득자는 2800억원, 대기업은 61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김병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 ·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 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추진한다.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근로장려금을 확대 · 재설계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키고 지급금액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부세 개편안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해 차등 적용한다.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국민의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상향조정한다.

다.

이어 고용유지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기업이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감가상각 기간을 1/2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계관, 조세제도의 효율화 ·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취약계층 농업인 방문 피해현황 점검 · 유료 전달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지난 28일 농협생명 부사장 강태호, 무주군지부장 송혁, 구원동농협 조합장 양승욱 등과 무주군 실천원 하평지마을 경노당을 방문, 지속적인 폭염으로 고생하는 농업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수박, 음료를 등을 전달 농업인과 함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축사 등이 심다. 농작물 피해도 급속도로 증가하며 특히, 온열질환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협 차원에서 물 부족지역에는 생수를 지원, 취약계층 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애로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롯데마트 군산점, 지역 전통시장과 소통 · 협력

롯데마트 군산점(점장 문준석)은 지난 26일 2층 문화센터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명신시장에 소하기 5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올해 1월 23일 명신시장 상인회와 롯데마트 군산점이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신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하기 50대를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전달행사가 진행됐다.

롯데마트 문준석 점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명신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선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준석 지역경제과장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전통시장인 명신시장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는 롯데마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한의과 나누리 동아리, 한방의료 재능 나눔

완주 인덕마을에서 의료 나눔 · 마을가꾸기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원광대학교 한의과 나누리 동아리 학생들과 농업 팜스테이 마을 완주 인덕마을에서 주변 마을 어르신들 200여명을 대상 한방 재능 나눔과 마을가꾸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 나누리 동아리

학생 30여명은 완주 인덕마을에서 소양면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과 함께 개인별(침, 부항 뜸) 등 한방의료 재능 나눔 봉사했다.

또한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해(마을주변 하천 정화작업, 쓰레기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쳐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철환 인덕마을 위원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마을까지 찾아와 한방 의료 봉사와 마을 환경 정리까지



해주시,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마을 어르신들에게 힘이 돼 주길 바란다"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농업 - 도시인의 디지털도우미

농협상호금융, '콕팜 2.0' 오픈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농업인과 도시인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콕팜 2.0' 서비스를 30일 출시했다고 전북농협이 밝혔다.

지난 2월 금융권 최초의 융·복합 서비스로 개발한 '콕팜'은 금융과 유통이 만나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며 소비자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컨텐트노 농업인에게는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일반고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확대 개편을 통해 '콕팜 2.0'은 조합원 맞춤 정보 제공하는 '조합원 사랑방' 및 모든 고객에 이용할 수 있는 '내고향소식'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 사용자 화면을 변경하여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조합원은 '조합원사랑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농협소식과 경조사를 얻



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수있고 농협을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아도 '농협이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 출자 배당, 농산물 출하내역, 영농자재 구매내역, 면세유 현황도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내 고향 소식'으로 농·축협이 전하는 지역소식 등 내 고향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농업인 지원제도'를 통해서 정부 지자체, 농협이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NH일자리 · 창업농식품기업우대대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일자리창출, 고용증대' 우수농식품 기업 및 창업 농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NH일자리, 창업농식품 기업우대대출'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NH일자리, 창업농식품기업우대대출'은 일자리창출(고용증대)에 기여한 농식품기업, 창업 5년 이내 농식품기업 및 농업인(귀농인), 성실 실패자로 '재기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재창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농협은행 거래실적 및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농협에서 선정한 '채농민수상자' 정부선정 '신지식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농업인 및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여,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경우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남원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27일 조합 3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농가 실증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가득 메운 20여 농가를 받아볼 수 있으며, 농업인 지원제도'를 통해서 정부 지자체, 농협이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병무 조합장은 "현재 상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다며, 축협도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축협은 관내 12개 건축사 사무소와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고,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에 한해 지자체 적법화 보완이행기간(1년이내) 연장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준법감사인 심의결 · 제 2018-다-37호 (심의일자 : 2018. 1. 30 현재)